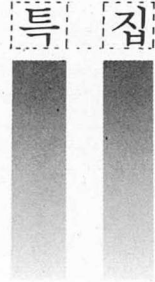


改善方向  
고기의 유통  
돼지 및 돼지



尹 孝 稷

(建国大学校 畜産大学)

1. 서언

流通問題의 發生은 經濟發展의 產物이다. 原始經濟體制下의 生産主体와 消費主体가 同一하던 때에는 流通의 問題가 發生할 素地가 없었다.

그러나 經濟發展은 生産性向上에서 求해지며 이 生産性向上은 分業에 依해서 可能하다. 이 分業은 生産主体와 消費主体의 分化를 意味하며 따라서 流通의 問題를 內包하게 된다.

그러므로 流通問題가 복잡해져가는 現象自体는 經濟發展에 따른 필연적 現象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경제발전의 進前에 따라 멀어져만 가는 生産主体와 消費主体의 關係를 원활하게 연결시켜 生産력증대가 차질없이 발휘되도록 하는 것이 流通改善의 基本課題라 할 수 있다.

2. 돈육유통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의 養豚産業은 1960年代부터 눈부신 成長을 계속해 왔다. 이러한 成長은 一次의 으로 소득증대와 저렴한 미국잉여농산물의 순조로운 도입에 依한 사료의 安定的 供給과 새로운 品種 및 사양기술의 導入에 연유된 것이다.

그러나 1975년과 1979년 및 1983년에 恐慌의 發生으로 生産기반은 크게 흔들렸으며 돼지가

격의 폭락으로 뜬물양돈농가와 中農이 道산을 면치 못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시 독점자본가의 養豚에 로의 진출이 활발히 進行되었고 이들이 사료공 場 육가공장 종축장을 소유하는 經濟的 統合 (Economic Integration)을 감행하므로써 市場 構造마저 完全競爭市場에서 獨寡占市場으로 전환케 하므로써 가격조절을 가능케하고 있다.

더우기 이러한 현상은 양돈부문에서 두드러 지게 나타나고 있는 바 1979년과 1983년의 돼지 公황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와 같은 생산구조면에서의 모순 뿐만 아니 라 가격기구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發生되고 있는 바 정부가 쇠고기 돼지고기 가격에 대하여 협정가격이라는 최고가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단지 물가안정의 일환으로 가격억제의 역 할에만 취중한 나머지 生産성을 크게 저하시킨 반면 유통질서에 혼란을 가져와 불공정거래를 촉진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더우기 이와 같은 가격통제는 쇠고기 편중소 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한우육의 만성적 부족 을 초래케 하고 닭고기, 돼지고기의 수요를 감 퇴시켜 축산의 발전을 저해하고 도매시장의 가 격형성과 분배기능을 약화시켜 불공정거래를 유 발시킬 뿐이다.

이러한 여건하에서는 산지 가축시장이나 소비자의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에서 공정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유통과정에 혼란만이 야기 될 뿐이다.

한편 물가당국이 도매시장에서의 가격통제는 지육의 가격형성을 불공정하게 유도하게 하여 이로 인한 유사도매행위의 성행은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가격통제로 인하여 소비단체인 정육점에 있어서도 부정등급, 부정척량, 혼육판매등 여러가지 불공정거래가 나타나고 있어 농가문전을 떠나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불공정거래로 일관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 3. 유통개선의 방향

이상 우리나라 돼지 및 돼지고기의 생산과 유통의 현황을 살펴 봄으로써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결론을 맺고자 한다.

이제까지 물가당국은 단지 물가안정의 일환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가격억제에만 치중한 나머지 생산성을 크게 저하시킨 유통질서의 혼란과 쇠고기의 편중소비를 조장하는 결과만을 초래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가격억제 및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지양하고 생산자에게 생산을 위한 유인을 계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수취가격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잉생산의 방지를 위한 시장정보체제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과잉생산의 경우 정부 매상량을 늘임과 동시에 종래와 같이 국내쇠고기 가격이 높다하여 다량의 쇠고기를 수입하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돼지 및 돼지고기의 시장구조를 독점적경쟁 및 과점시장구조에서 완전경쟁시장

으로 전환토록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축시장에서 목축에 의한 중매방법을 지양케하고 경매방법으로 전환토록 해야하며 도매시장의 경매에 있어서도 중매인과 매참인의 수를 대폭늘여 완전경쟁시장화 하는 정책적 뒷바침이 따라야 한다.

더우기 오늘날과 같이 도매시장에서 출하두수가 많을 때는 지육율이 낮아지고 출하두수가 적을 때는 지육율이 높아지는 모순을 과감히 시정해야 하며 도축직전 생축제량을 의무화하고 부산물거래에서도 현재의 수의계약에 의한 독점구매를 경매로 전환토록 제도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육유통의 합리화를 위하여 부위별, 등급별로 절단포장하여 차등가격제를 실시토록 해야 한다. 쇠고기의 경우 수입육은 부위별로 절단하여 포장육으로 판매하고 있으나 돼지고기의 경우는 소수의 슈퍼마켓에서 일정한 기준없이 나름대로 절단하여 포장육으로 판매하고 있으나 부위에 대한 소비자의 신빙도가 낮으므로 공신력있는 축협 및 농어촌개발공사나 신용력 있는 기업으로 하여금 포장판매토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일본이나 미국처럼 산지에 식육가공공장 (Cut Meat Plant)을 설립하여 여기에서 도축하여 등급별, 부위별로 절단 포장하여 소비지에서 판매하는 제도가 하루바삐 도입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농가문전거래에서 생산농민이 입는 경제적 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 소비자도 불공정거래에서 일어나는 경제적 피해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물가당국이 가격통제를 지양하고 산지시장과 소비지의 도매시장구조가 완전경쟁화 하며 부위별 등급별로 포장하여 판매될 때 오늘날과 같은 불공정 거래는 해소되고 생산자와 소비자는 보호될 것이다. ◇